

# 新羅僧 慧超의 인도네시아(Indonesia), 스리위자야(Sriwijaya)王國 滯在 可能性에 對한 小考\*

- 『一切經音義』와 '스리위자야' 王國의 地政學的 位置를 中心으로 -

김영수\*\*

##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滯在可能性      |
| II. 慧超의 旅程       | 1. 『一切經音義』 語句, 語彙 分析       |
| 1. 東南아시아의 航路     | 2. 慧超의 豫想航路(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
| 2. 旅程의 始作        | 3. 裸形國의  위치                |
| 3.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 4. '스리위자야' 王國의 佛教          |
| 4.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 | 5. 慧超의 言語 判別力              |
| III. '스리위자야' 王國  | V. 맺는 말                    |
| 1. 出現            |                            |
| 2. 發展과 隆盛        |                            |
| 3. 滅亡            |                            |

## 表目次

- <表 - 1> 慧琳의 『一切經音義』中 『慧超往五天竺國傳』上卷에 收錄된 語句, 語彙  
 <表 - 2> 수마트라 東部海岸 堆積으로 인한 內陸化

## 地圖 目次

- <地圖 1- 1> 12-13世紀 물길(무역로)  
 <地圖 1- 2> 慧超와 '스리위자야' 王國 關聯 地名  
 <地圖 1- 3> 8세기경 東南亞 國家  
 <地圖 1- 4> 250년경 東南亞 海上交易路  
 <地圖 1- 5> 430-610년 동안 東南亞 海上交易路  
 <地圖 1- 6> '크라' 峽地 通過 可能性 推論과 慧超의 航路  
 <地圖 1- 7> 싱가포르(Singapore) 海峽 隣近 群島  
 <地圖 1- 8> 수마트라 東部海岸 堆積地帶  
 <地圖 1- 9> 팔렘방, 잠비 隣近地域 堆積地帶  
 <地圖 1- 10> 慧超의 豫想航路(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 그림 目次

- <그림 2- 1> '보로부드르' 寺院 벽면에 浮刻된 船舶그림

\* 본 글은 2회로 나누어 실립니다. 이번호에는 I 장과 II 장만 실리고 III 장의 '스리위자야' 王國부터는 3호에 실립니다.

\*\* 韓國放送公社 國際放送局 인도네시아語放送 프로듀서

傳』(9世紀頃 筆寫 推定)<sup>9)</sup>의 原著者가 慧超로 確認됐다.

그러나 『一切經音義』의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收錄되어 있는 語句, 語彙 39개는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에서 發見되지 않았으며, 이는 筆寫本의 앞부분이 遺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은 3券(上, 中, 下)으로 된 原典 『往五天竺國傳』을 券으로 나누지 않고 全部 筆寫한 完本의 可能性을 主張하는 見解<sup>10)</sup>도 있으나 『一切經音義』에 收錄되어 있는 語句, 語彙의 總計가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에 나타나고 있는 語句, 語彙의 숫자보다 더 많은 理由를 根據로 하여 上, 中, 下卷으로 되어 있는 原典을 縮略하여 줄여 쓴 節約本이라는 中國의 歷史學者 羅振玉의 見解가 더 우세하다.<sup>11)</sup>

羅振玉의 見解에 관련하여 『一切經音義』의 『慧超往五天竺國傳』과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에 收錄된 語句, 語彙의 總計 比較 이외에도 現存하는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의 첫 부분의 記述, 즉 ‘裸形國’<sup>12)</sup>에 관한 내용과 『一切經音義』의 『慧超往五天竺國傳』 中卷에 收錄된 語句, 語彙 중 첫번째로 登場하는 ‘裸形國’ 語彙의 相關關係를 根據로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은 3券으로 된 原典 『往五天竺國傳』을 節約하여 筆寫한 것이며 특히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의 遺失된 部分은 原典 『往五天竺國傳』의 上卷部分을 節約하여 筆寫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

1908년 ‘펠리오’에 의해 역사의 裏面에서 表面으로 登場하게된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 대해 1909년 羅振玉은 『敦煌石室遺書』 제1冊속에 『校錄札記』를 붙여 說明을 했고 1911년 日本人 學者 후지다(藤田豊八)는 羅振玉의 影印本을 基礎로 하여 『往五天竺國傳』의 註釋書인 『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을 발표했다. 1915년 日本人 學者 다카스키(高楠順次郎)은 『慧超傳考』를 발표, 慧超가 中國人이 아닌 新羅 僧侶임을 밝혔고 1938년 獨逸의 東洋學者 폭스(W. Fuchs)는 『往五天竺國傳』을 獨逸語로 翻譯, 最初의 外國語 翻譯으로 기록됐다.<sup>13)</sup>

新羅僧이며 入竺僧으로 『往五天竺國傳』을 남긴 慧超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高柄翎 博士가 그의 著書 『慧超의 길을 따라』<sup>14)</sup>에서 “慧超

9) 慧超, 李錫浩譯, *op. cit.*, p. 16.

10) *Ibid*

11) *Ibid*

12) 現 印度領 니코바르(Nicobar)群島, 本稿 “II. 慧超의 旅程 4)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滞在可能性 3) 裸形國의 位置” 參照.

13) 慧超, 李錫浩譯, *op. cit.*, p. 12.

14) 高柄翎, 『慧超의 길을 따라』 (서울: 東亞日報社, 1984), p. 11.

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한 記錄이 나올성 싶지 않고 더 알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밝혔듯이, 慧超의 出生地, 出生年度, 俗名, 入唐時期, 五天國行의 動機, 目的, 出發日字 그리고 五天竺國 巡禮 後 中國에서의 行蹟 등 많은 부분이 확인될 수 없는 忘却의 彼岸에 存在하고 있다.

李錫浩 教授는 그의 譯書 『往五天竺國傳』<sup>15)</sup>에서 慧超의 履歷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慧超의 出生年度는 704년(聖德王 3)統一新羅期이며 719년 그의 나이 16세 때에 中國 廣州에서 南部 印度 出身인 僧侶<sup>16)</sup> 金剛智(Varjabodhi.671 -714)와 不空三藏(Amoghavajra. 705-744)을 만나 金剛智에게 師事하다가 그의 勸誘로 723년 弱冠의 나이에 印度로 求道旅行을 떠나 727년 中國으로 돌아와 長安에 있는 薦福寺에서 스승 金剛智를 모시고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이라는 密教 經典을 연구, 740년부터 金剛智는 이 經典을 漢譯하고 慧超는 筆寫한다. 金剛智가 741년에 死亡하자 이 作業은 中斷되었고 그 후 774년 5월 7일에 不空三藏의 6大弟子中 제2人者로 遺囑<sup>17)</sup>, 慧超는 中國 密教 改宗의 初祖인 金剛智에서 不空三藏 그리고 慧超로 脈을 잇는 繼承者가 됨. 780년 4월 15일 佛經을 翻譯하고자 中國 五臺山 乾元菩提寺에 들어가 787년 入寂할 때까지 餘生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慧超의 履歷에 대해서는 많은 異見이 提示되고 있으며 특히 出生年度와 入竺을 위해 그의 旅程을 出發한 時期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年度를 論證 없이 밝히고 있다. 그 理由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歷史的 記錄物에서 慧超를 발견할 수 없다는 事實과 그에게 더 가까이 接近할 수 있는 길을 提示했을 그의 唯一한(?) 著書 『往五天竺國傳』 原典의 未發見(?)과 筆寫本 『往五天竺國傳』 앞 부분 (原典 『往五天竺國傳』의 上卷 部分)의 遺失은 우리가 慧超에게 다가서는 努力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現存하는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은 慧超가 ‘裸形國’에서 滯留 後 釋迦가 涅槃한 印度의 ‘抱尸那國’<sup>18)</sup>으로 배를 利用하여 한달만에 도착, 五天竺을 中心으로 32개 國과 地域을 訪問하고 지금의 아프카니스탄과 러시아의 接境地 帶인 ‘투카라국’(吐火羅國)에서 그 地域 서쪽과 북쪽에 있는 10개의 나라 즉

15) 慧超, 李錫浩譯, *op. cit.*, pp. 32-33.

16) 入唐하여 佛經翻譯에 참가한 僧侶는 약 20인이 記錄에 보인다. 많은 승려들이 醫學에 능하여 疾病을 잘 알아서 治療했다. 印度의 天文學者가 長安에 있는 사천대에서 職務를 擔當했다. 羅伯贊編, 이진복, 김진옥 옮김, 『中國全史(上)』(서울: 學民社, 1990), p. 466 參照.

17) 遺囑書에 慧超가 新羅人임을 記錄.

18) 구시나가라(Kusinagara). 現 카시아(Kasia) 地方.

‘波斯’<sup>19)</sup>, ‘小拂臨國’, ‘大拂臨國’, ‘安國’, ‘曹國’, ‘史國’, ‘石驪國’, ‘米國’, ‘康國’, ‘跋賀那國’에 대한 見聞을 聽聞하여 넓히고 727년 11월 上旬 唐의 安西都護府<sup>20)</sup>가 있는 ‘쿠차국(龜茲國, 現 庫車)’에 到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慧超의 잊혀진 求道巡禮의 길인 中國에서 ‘裸形國’까지의 旅程을 여러 客觀的인 歷史事實과 관련되는 當爲的인 要因을 根幹으로 하여 追跡, 復元하는 作業은 外國學者들에 의해 그의 그림자 한부분을 내보인 慧超의 實體에 한걸음 더 접근할 수 있는 動機를 提供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점차 우리에게 그 存在의 意味가 重要하게 다가오고 있는 廣義의 韓·東南아시아<sup>21)</sup>, 狹義의 韓·인도네시아 관계에 있어 1천 2백여년 前에 온갖 逆境을 견디어 내며 東南亞地域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慧超의 여정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忘却되어진 慧超의 旅程 復元과 동시에 관련되는 諸問題를 提起함으로써 特定分野로만 偏重되어 그 協力の 關係를 深化시키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韓·東南亞地域간의 관계에 있어서 歷史的, 文化的 接近方法이 갖는 또 다른 측면의 意義를 本考에서 浮刻시키고 싶다.

本考의 研究範圍와 方法은 慧超의 旅程中 잊혀진 中國에서 ‘裸形國’까지의 길을 당시 사람들이 이용했던 海路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나오는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收錄된 39개의 語句, 語彙를 분석하고 7世紀부터 12世紀까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era)地域에 존재했던 巨大海洋, 佛敎王國이었던 스리위자야(Sriwijaya)의 地政學的 位置와 歷史 그리고 ‘裸形國’의 位置, 慧超의 言語 判別力을 考察함으로써 慧超의 ‘스리위자야’王國 滞在 可能性을 提示하고자 한다.

특히 慧超가 利用했을 可能性이 높은 海路中 말라카(Malacca)海峽<sup>22)</sup>의 당시 地理的 狀況을 수마트라 東部海岸線의 地形的 變形을 中心으로 考察하고 현재 싱가포르(Singapore)海峽과 그 隣近 群島<sup>23)</sup>의 地形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8世紀 初葉 東南亞地域 海路와 慧超의 旅程과의 關係를 把握하고자 한다.

이러한 接近方法을 통하여 20世紀에 들어와서야 겨우 그 모습의 한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잊혀졌던 王國 ‘스리위자야’와 거의 같은 時期에 사람들의 오랜 忘却에서

19) 페르시아.

20) 640년경 唐은 ‘高昌國’을 征服하고 安西都護府를 설치. 西域 經營의 前進基地로 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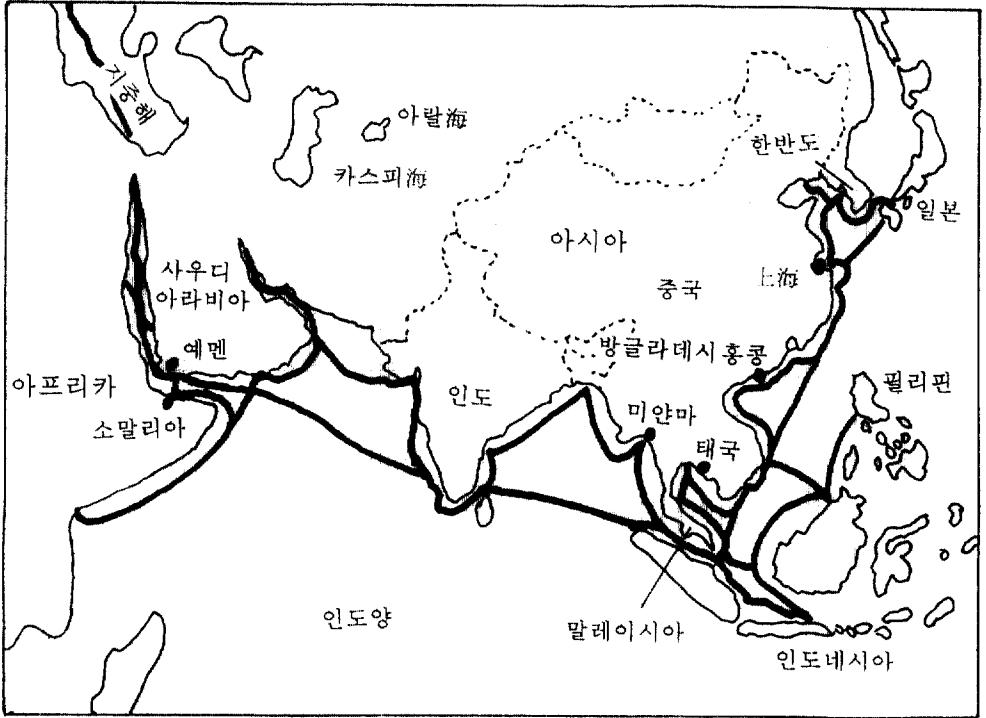
21) 本稿에서 東南亞의 意味限定은 通稱的 區分方法을 適用, 즉 陸地部인 인도차이나半島地域과 島嶼部 國家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한 ASEAN 地域을 말함.

22) 말레이半島와 수마트라 사이를 貫通하는 海峽. 길이 약 1,000Km.

23) 바탐(Batam), 빈탄(Bintan), 링가(Lingga), 싱kep(Singkep), 방가(Bangka)섬 등이 있음.

記憶되는 인물로 등장한 慧超에 대해 새로운 視角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摸索하고자 했다.

<地圖 1-1> 12-13世紀 물길(무역로)<sup>24)</sup>



## II. 慧超의 旅程

韓半島가 3國으로 鼎立되어 있을 때 外部와 連結되는 西海(黃海)海路는 크게 나누어 세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첫번째가 韓半島 西海岸에서 渤海灣을 거쳐 華北 地域에 닿는 北方航路, 두번째는 中部 南洋灣을 떠나 맞은편 山東半島 登州 등으로 들어가는 西海橫斷航路, 세번째로는 西, 南 海岸에서 中國 長江(揚子江) 以南 地方을 連結하는 南方航路이다. 그 중 高度의 航海術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危險負擔이 많

24) 尹明喆, “季節風, 韓民族 文化 뿌리 찾기 海洋學術紀行 (31)”, 『朝鮮日報』, 1991.10.2)

은 세번째 南方航路는 가장 늦게 開發됐다.<sup>25)</sup>

한편 新羅 初期, 高句麗, 百濟와 同伴하여 中國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던 新羅는 國力이 伸張된 眞興王 25년부터 中國에 單獨使臣을 派遣하기 始作했다. 또한 富國強兵을 위해서는 高句麗, 百濟의 干涉에서 벗어나 獨自的인 外交와 바다를 통한 國際貿易의 必要性이 提起되었다. 新羅는 서둘러 海軍을 創設하고 船府署를 만들어 船舶建造와 兵士들을 訓練시켰다. 이에 대해 高句麗는 新羅의 對唐航路인 北方航路를 封鎖했다.

新羅는 中國과의 交易路가 막히자 새로운 西海橫斷路(德勿島 - 山東半島 萊州)를 開拓, 이 벉길로 商船<sup>26)</sup> 뿐만 아니라 新羅의 僧侶들이 中國으로 留學을 갔고 이슬람 世界와의 交流도 시작됐다.<sup>27)</sup> 또한 이 航路는 統一新羅時代부터 中國의 南方航路와 연결되어 唐의 商人들이 日本을 갈 때 6, 7월경 寧坡(明州의 옛 이름)에서 季節風을 이용해 東中國海를 건넜으며 9월에 北東風을 타고 歸國했다. 따라서 慧超가 入唐시 정확한 年代는 알 수 없지만 이 西海橫斷路를 이용했을 可能性은 매우 높으며 그 時期는 北東風이 부는 季節이었을 蓋然性이 매우 높다.

특히 中國에 統一된 唐帝國이 들어서고 (618) 韓半島가 新羅에 의해 統一되자 中國으로 가려는 僧侶를 포함하여 新羅人들의 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趨勢였다.<sup>28)</sup> 따라서 8, 9世紀頃에 山東半島 一圓과 黃河, 淮河 地域에는 新羅의 統一戰爭으로 생긴 高句麗와 百濟 등의 流民과 捕虜를 비롯해 留學生, 求法僧, 貿易商人 등이 긴 세월 동안 定着, 融合하면서 生業을 잇고 있었다.<sup>29)</sup>

入唐한 僧侶들 가운데 그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의 수만 해도 칠,팔십명을 헤아리며 9世紀 中葉 日本의 天台僧인 圓仁은 10년간 中國에 머무는 동안 到處에서 新羅의 僧侶를 만났으며 山東의 登州에서는 그들이 新羅인 백여명을 상대로 新羅語로 華嚴經을 說法하고 있었음을 記錄으로 남기고 있다.<sup>30)</sup>

한편 新羅, 百濟,<sup>31)</sup> 高句麗의 僧侶로서 印度에 간 사람도 적지 않다. 現在 그 이

25) 尹明喆, 『南方航路, 韓民族 文化 뿌리 찾기, 海洋學術紀行(32)』 (서울: 朝鮮日報, 1991. 10. 8)

26) 배의 모양은 平底船에 帆과 櫓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 張學根, 『배, 신라의 交易船』 (서울: 서울新聞, 1992. 9. 2)

27) *Ibid*

28) 高柄埈, *op cit*, p. 13.

29) 金文經, 『장보고』 (서울: 朝鮮日報, 1992. 11. 17)

30) 高柄埈, *op cit*, p. 14.

31) 百濟僧 謙益이 바닷길로 印度에 가서 5년간 머문후 印度僧과 함께 佛經을 가지고 526년

름이 把握되고 있는 사람만도 阿離那跋摩(Aryavarma), 慧業, 玄太, 慧輪, 玄格, 玄游와 義淨<sup>32)</sup>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나오는 姓名未詳의 2명의 新羅僧이 中國의 廣州에서 배편으로 출발, 交州(現 베트남 하노이 近處)를 거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西北쪽에 있는 '婆魯師國'<sup>33)34)</sup>에서 病死<sup>35)</sup>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 8명이 알려지고 있다.

그 중 高句麗의 玄游는 義淨이 印度에서 歸國할 때 '獅子國'<sup>36)</sup>에서 出家한 것이 確認되고 있다.<sup>37)</sup> 한편 慧超보다 약 半世紀 앞서 또는 그 以前에 印度로 갔던 이들을 알 수 있는 위의 6명 중 玄太를 除外하고는 모두 歸國하지 못하고 異域에서 세상을 떠났다.<sup>38)</sup> 이렇듯 慧超 以前에 우리나라 求法僧들이 險難한 陸路 또는 海路를 통해 入竺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 1. 東南아시아의 航路

페르시아灣을 출발한 이슬람 商人들은 印度등을 거쳐 4, 5월경 中國 廣州에 도착했다. 이들은 6개월 정도 기다린 뒤, 10, 12월이 되면 北風을 타고 南쪽으로 떠나 故郷으로 돌아 간다. 즉 季節風을 이용한 歸鄉<sup>39)</sup>이다. 中近東 또는 印度에서 오는 배

에 歸國한 일도 전해지고 있음. 高柄玟, *op. cit.*, p. 14.

32) 姓은 張이며 范陽人(635-713). 咸亨 2년(671) 中國 廣州에서 乘船하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는 팔렘방(Palembang), '니코바르'群島를 거쳐 印度에 上陸, 695년에 歸國, 25년간의 見聞記인 『南海寄歸內傳』, 『大唐西域求法高僧傳』을 남김.

33) 수마트라 北部에 있는 中部 따빠눌리(Tapanuli)郡 바루스(Barus)면에 位置, 씨볼가(Sibolga)市에서 66Km 거리에 있음. 紀元前 2世紀부터 '바루스'라는 名稱으로 알려짐. Klaudios Ptolemaios의 *Geographkey* 참조, 또는 Hasan Muarif Ambary, *Catatan tentang penelitian beberapa situs "Masa" Sriwijaya*, Praseminar penelitian Sriwijaya Jakarta 7-8 December 1978 (Jakarta: Pusat penelitian purbakala peninggalan nasional, 1979), p. 7. 참조

34) 印度 출라만달라(Colamandala)王朝 (9-13世紀)때 타밀(Tamil)族이 세운 海上交易定着地 말레이半島 크라(Kra)狹地 近處인 타쿠아 푸(Takua pu)地域에도 類似的한 交易定着地가 있었음. Alastair Lamb, *Cultural history of India, chapter VIII. Indian influence in ancient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 press), p. 450 참조

35) 有新羅僧二人, 莫知其諱, 發自長安, 遣之南海, 汎舶至室利佛逝國西婆魯師國, 遇疾俱亡. 義淨,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卷下 參照

36) 現 스리랑카(Srilangka).

37) 僧哲弟子玄游, 高麗人也, 隨師於獅子國出家, 因往彼矣. 義淨,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卷下 參照

38) 高柄玟, *op. cit.*, p. 15.

39) 尹明喆, 『季節風, 韓民族文化 뿌리 찾기, 海洋學術紀行(31)』 (서울: 朝鮮日報, 1991. 10. 1)

들은 東南風일 때 中國으로 오고 반대로 말레이半島 東쪽에서 오는 배들은 北東風일 때 西쪽으로 간다.

<地圖 1-2> 慧超의 '스리위자야' 王國 關聯 地名



\* 新唐書 藝文志 地理志 160部에 收錄된 賈 <통해이도>에 언급된 地名中 '펠리오'가 考證한 地名인 獨珠山(Tinbosa), '쿨라오 참(Culao Cham)', 사호이(Sahoi)岬, 부라우위스(Brouwers)群島의 現 位置는 本考에서 把握하지 못함.



後漢書 <西域傳>을 보면 로마(大秦國)의 왕 '안토니우스'(安敦)가 보낸 使臣이 後漢 桓帝때(166) 바닷길을 따라 中國에 到着한 記錄이 있다. 使臣을 詐稱한 商人의 商術인지는 確認할 수 없지만 위 사실로 보아 中國과 中近東을 잇는 海路는 일찍부터 열려 있었던 것으로 推定할 수가 있다.<sup>40)</sup>

東西의 두 세계를 陸路로 연결하는 '陸上 비단길' 중 타림(塔里末)盆地的 西域北道와 西域南道를 中心으로 751년(天寶 10년)에 있었던 탈라스(Talas)戰<sup>41)</sup>에서 高仙芝의 慘敗와 그 結果로 일어난 '安史의 亂'<sup>42)</sup>으로 '陸上 비단길'의 經營이 中國의 影響에서 벗어난 후 東西 文物交流는 東南아시아의 海上航路를 크게 利用하기 始作했다.<sup>43)</sup>

또한 8世紀 中葉 以後부터 東南아시아를 거쳐 西方世界로 航海할 수 있는 交通路가 活氣를 띄게된 또 다른 이유는 南北朝時代<sup>44)</sup> 以後 中國 南部의 急速의인 産業發展과 航海 및 造船術의 發展으로 商圈이 中國 南部 특히 海岸地帶로 옮겨진 것들을 수가 있다.<sup>45)</sup>

일찌기 文物의 運送手段으로써 陸上에서는 낙타, 당나귀, 말 등, 動物에 依存할 수 밖에 없어 物動量의 制限을 가져 왔으나 大量의 物量을 동시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배와 그 배길에 대한 重要性에 대해 더 많은 利益을 追求하려는 商人들이 關心을 갖는 것은 당연한 趨勢였다.<sup>46)</sup>

『新唐書地理誌』 附錄을 보면 당시 中國에서 바다로 夷<sup>47)</sup>들과 연결되는 航路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中國 廣州에서 東南向으로 200里 바닷길을 따라가면 屯門山에 도착하고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이틀 가면 九州石이 나오고 또 남쪽으로 이틀 가면 象石에 다다르고 또 다시 서남쪽으로 3일을 가면 占不勞山에 도착한다. 이 산은 環王國 동쪽으로 200리 거리에 있는 바다에 서있다. 다시 남쪽으로 이틀 가면 陵山, 또 하루 거리에 門毒國 또 다시 하루 걸려 바닷길을 따라 가면 奔陀浪洲 다시 이틀을 가면 軍突

40) 李龍範, 『Silk Road(실크로드), 東南 아시아 航路와 韓國史』 (서울: 三省堂, 1987), p. 190.

41) 571년 唐將 高仙芝와 東進하는 우마이야朝 遠征軍과 武力衝突, 唐軍 大敗.

42) 唐 玄宗 末葉에 安祿山과 史思明이 主動이 되어 일으킨 亂. 安祿山이 일으키고 史思明이 承繼. 玄宗 元年에 史思明의 아들 朝義가 죽을 때까지 9년간 계속됨.

43) 李龍範, *op. cit.*, p. 189.

44) 永初 420부터 開皇 589까지 中國이 南北으로 對立했던 時期 異論이 있을 수 있음.

45) 李龍範, *op. cit.*, p. 189.

46) *Ibid*

47) 『唐書藝文志地理類書』 160部に 收錄된 賈耽의 通海夷道 參照.

弄山 또 5일쯤 가면 해협이 나오며 이를 質이라 불렀고 남북으로 100리 거리이며 북쪽 海岸은 羅越國이며 남쪽은 佛逝國이다. 佛逝國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45일 가면 訶陵國이 나오는데 이는 남쪽 大陸中에 제일 큰 面積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이곳을 떠나 서쪽으로 3일 가면 葛葛僧祇國에 도착하는데 이 나라는 佛逝國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掠奪을 일삼아 이곳을 지나는 배와 승객들을 두렵게 했다. 이 나라의 북쪽은 箇羅國이며 그 서쪽은 哥谷羅國이다. 다시 葛葛僧祇國에서 4, 5일 가면 勝鄆洲 다시 서쪽으로 5일 가면 婆露國, 6일 가면 婆國, 伽藍洲에 다다른다.

以上 中國 廣州에서 伽藍洲까지 이르는 뱃길을 『新唐書地理誌』를 中心으로 살펴 보았고 그 以後 繼續되는 航路에 대해서는 本考와 直接 關聯이 없어 省略한다. 위의 뱃길을 ‘펠리오’는 다음과 같이 考證하고 있다.<sup>48)</sup>

즉 屯門山은 大嶼山과 홍콩(Hongkong, 香港)北쪽 海岸과 琵琶洲 사이에 位置하고 있고 九州石은 後에 七洲(Taya)<sup>49)</sup>인 것 같고 象石은 獨珠山(Tinbosa)<sup>49)</sup>이고 占不勞山은 安南의 쿨라오참(Culao Cham)<sup>50)</sup>이고 還王國은 예전의 林邑<sup>51)</sup>이고 陵山은 安南의 사호이(Sahoi)<sup>52)</sup>岬이다. 門毒國은 지금의 安南의 歸仁으로 여겨지며 奔陀浪洲는 後에 賓童龍으로 판두랑아(Panduranga)를 音譯한 것 같고 지금의 베트남 南部 地域을 나타낸다. 軍突弄山은 崑崙山으로 지금의 풀로 콘도르(Pulo Condore)이며 質은 지금의 싱가포르 海峽이다. 羅越國은 분명 말레이 반도 남단이며 佛逝國은 室利佛逝國(스리위자야, Sriwijaya)으로 남해에서 대국에 속했다. 訶陵國은 梵語인 갈링아(Kalinga)의 音譯으로 인도네시아 자와(Jawa)<sup>53)</sup>地域의 옛 王國 이름이며 葛葛僧祇國은 아마 부라우위스(Brouwers)<sup>54)</sup>群島를 이르는 것 같고 箇羅國은 아마 말레이시아 끄다(Kedah)<sup>55)</sup>西北쪽 혹은 西南쪽에 있는 한 섬인것 같다. 勝鄆洲는 아마 수

48) 馮承筠, 『中國南洋交通史』(臺灣: 臺灣常務印書館, 中華民國 20年), pp. 43-45.

49), 50) 本稿에서는 現 位置를 把握하지 못함. 홍콩과 베트남 北部海岸 사이의 地名으로 推定

51) 現 베트남 南部 地域에 있었던 王國名.

52) 現 베트남 ‘퀴논’ 北部에 位置.

53) 인도네시아 자바(Java) 섬의 인도네시아어 表記 以下 ‘자와’로 表記

54) 本稿에서는 現 位置를 把握하지 못함.

55) 말레이半島 西北海岸에 位置, 까타하(Kataha), 까다람(Kadaram), 羯茶 등으로 表記, ‘끄다’가 發展한 理由는 바다 30mile 밖에서 里程標로 볼 수 있는 3,987 feet 산이 있었고 배의 寄港이 容易한 水深 깊은 머르박(Merbak)江이 있었기 때문. N.J.Ryan, *The cultural heritage of Malaya* (Kuala Lumpur: Longman Malaysia sdn.Berhad, 1972), pp. 9-10 參

마트라의 델리(Deli)<sup>56)</sup> 혹은 랑캣(Langkat)<sup>57)</sup>地域을 의미하는것 같고 伽藍洲의 이름은 아마 翠藍을 指稱하는 것으로 '니코바르'群島를 指稱한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이 '펠리오'의 考證을 다시 한번 살펴 보며는 中國 廣州에서 출발한 배는 珠江을 따라 珠江灣을 거쳐 지금의 마카오(Macao)앞 바다로 나오게 된다. 그 後 지금의 海南島와 中國大陸 사이의 海路를 따라 통킹(Tonkin)灣을 지나 베트남 北部地域의 東部海岸으로 들어가게 된다. '쿨라오 참'과 '林邑'을 지나 '歸仁'(現 퀴논(Quy Nhon))을 거친 다음 '판두랑아'(現 판랑(Phan Rang))을 지나 '플로콘도르'(現 베트남 南部에 있는 崑崙島 또는 콘손(Con Son)섬을 거쳐 싱가포르 海峽에 到着하게 된다. 그 後 航路는 인도네시아 '자와'地域으로 가는 方向과 '말라카'海峽으로 가는 方向으로 兩分이 되며 '말라카'海峽으로 들어선 배는 수마트라에 있는 '델리'와 '랑캣'地域을 거쳐 '니코바르'群島에 到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여기서 關心을 끄는 地域은 北部 수마트라의 '델리'와 '랑캣'으로 '펠리오'가 言及하지 않은 '婆魯國'으로 본고 '2 慧超의 旅程'에서 밝힐 '婆魯師國'을 意味하며 2명의 新羅僧이 病死한 地域으로 그들이 그곳에 滯留한 理由가 入竺을 위해 배를 기다리다가 死亡했을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sup>58)</sup> 즉 入竺과 전혀 關係가 없는 地域에서 그들이 死亡한 것이 아니고 當時 活潑한 活動이 있는 港口를 갖고 있었던 '婆魯師國'에서의 滯留 可能性은 매우 높으며 '婆魯師國'의 港口에서 '니코바르'群島와 수마트라 東部海岸을 잇는 海路는 그 理由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sup>59)</sup>

이렇게 '니코바르'群島에 到着한 배는 北쪽에 있는 안다만(Andaman)諸島를 거쳐 印度의 갠지스(Ganges)江 어귀로 들어가는 航路와 '니코바르'群島에서 印度의 발라바르海岸 그리고 페르시아灣을 거쳐 호르무즈(Hormuz) 또는 바스라(Basra), 히라(Hillah) 그리고 바그다드(Baghdad)에 이르는 길을 따라 가게 된다.<sup>60)</sup>

아니면 1世紀末葉부터 利用된 中國의 洛陽 - 四川省 成都 - 揚子江 - 雲南省 昆明 - 이라와디(Irrawaddy)江 어귀에서 船舶으로 印度의 東海岸에 上陸, 또는 실론(現 스리랑카(Srilangka))에서 印度의 西南部와 발라바르 海岸 - 紅海 - 나일(Nile)江 -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航路를 들 수가 있다.<sup>61)</sup>

照. 또는 本稿 註 71) 參照.

56), 57) 北部 수마트라 아체(Aceh), 아사한(Asahan) 사이에 位置. 現在는 內陸에 있음.

58) 本稿 註 32, 33, 34) 參照

59) 本稿 II. 慧超의 旅程 3)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參照.

60) 李龍範, *op. cit.*, p. 189.

61) *Ibid*

## 2. 旅程의 始作

本考에 있어 慧超가 언제 入竺을 위해 巡禮를 始作했는지에 대해서는 考察할 수가 없다. 그 理由로는 正確한 出發日字를 밝힐 수 있는 資料가 發見되지 않음을 들 수 있다.

특히 『往五天竺國傳』 原典과 筆寫本 『往五天竺國傳』 앞 부분의 流失은 그 日字 把握을 不可能하게 만들고 있다. 단지 남아 있는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의 記錄을 中心으로 慧超가 '裸形國'에서 그의 마지막 到着地인 唐의 安西都護府가 있는 '쿠차'까지 旅行日數는 把握 不可能한 各 地域에서의 滯留日數를 除外하고 場所移動을 위해 消費한 日數는 總 14개월 141일, 약 561일로 把握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學者들이 主張하고 있는 慧超의 入竺을 위한 出發年度를 720年代初 즉 720, 721, 722 또는 723년으로 基準했을 경우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에 記錄으로 남아 있는 巡禮의 끝날인 727년 11월 上旬까지는 最短 3년에서 最長 7년이라는 旅行日數가 算出될 수 있다. 또한 場所移動을 위한 日數인 561일을 豫想 總 旅行日數인 最短 3년에서 最長 7년까지의 期間에서 除하고 남은 日數가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 旅行中 各 地域에서 滯留한 日數가 될 수가 있다.

즉 總 日程의 日數가 最短 3년일 경우 위의 561일 除하면 남은 日數가 약 1년 6개월 정도가 되며 이 期間을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 各 地域의 滯留日數, 巡禮 出發부터 '裸形國'까지 場所移動과 滯留를 위한 日數로 볼 수 있다. 한편 最長 7년으로 보았을 때 그 總 日數는 5년 6개월 程度로 볼 수 있다.

元開가 쓴 『唐大和尚東征傳』을 보면 天寶 9년(750)의 中國 廣州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廣州에서 婆羅門 寺刹이 세 곳이 있고 梵僧도 居住하고 있다. 江 위에는 婆羅門, 波斯, 崑崙<sup>62)</sup>의 船舶이 不知其數로 6,7장 높이에 寶物과 香油를 산더미처럼 싣고 떠 있다."<sup>63)</sup>

62) 當時 中國人들은 지금의 東南亞地域을 '崑崙' 또는 '南蠻'이라고 불렀으며 그 地域은 北으로는 占城(現 베트남 南部地域), 南으로는 '자아', 西로는 말레이半島, 東으로는 婆羅洲(現 보르네오(Borneo))一帶을 包含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非洲(현 아프리카(Africa)) 東쪽까지 崑崙이라고 불렀다. 慧林의 『一切經音義』를 보면 崑崙은 南海에 사는 夷人이며 裸體에 몸이 까맣고 猛獸를 길들이는데 能하고 여러 種類의 사람이 있는데 모두 卑賤하여 禮節이 없고 노략질을 일삼고 言語가 落後하고 水泳에 能하다고 表現되어 있다. 또한 『舊唐書』 197卷 林邑傳에 보면 林邑 以南에 살며 곱슬머리에 검은색 皮膚를 지닌 사람을 總稱하여 崑崙이라 했다.

63) 廣州有婆羅門寺三所, 並梵僧居住, 江中有婆羅門波斯崑崙等船, 不知其數(以下 省略) 元開

이는 中國 廣州가 當時 海上交易의 中心地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東南亞 또는 中近東地域과 연결되는 海上路의 중요한 寄港地임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入唐 後 그의 活動地域을 廣州로 정한 慧超가 入竺을 위한 巡禮길의 첫걸음을 廣州에서 乘船하는 것으로 始作했을 可能性은 매우 높다. 즉 海路를 따라 入竺했다가 陸路를 통해 中國으로 돌아온 慧超가 그의 出發을 위해 廣州 이외의 地域에서 乘船했을 可能性은 매우 적은 것이다.

이는 慧超의 入竺旅程이 始作되는 거의 같은 時期에 重要한 寄港地로서 廣州의 繁華함을 記述하고 있는 『唐大和尙東征傳』 내용이 廣州에서의 乘船 可能性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婆魯師國'에서 病死한 2명의 新羅僧과 中國의 義淨 등 慧超 이전의 많은 僧侶들이 海路를 통한 入竺을 위해 그 첫 乘船地로서 廣州를 택한 記錄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또한 慧超 入竺時 '스리위자야' 王國의 勃興으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東南亞海路를 外面했을 可能性은 적으며 그의 스승인 金剛智와 不空三藏이 印度를 出發하여 入唐할 때 이용한 東南亞海路를 逆으로 따라 갔을 可能性<sup>64)</sup>은 매우 높은 것이다.

한편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收錄된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의 39개 語句, 語彙, 中 航海<sup>65)</sup>에 關聯된 意味와 狀況을 나타내는 語彙는 慧超가 陸路가 아닌 海路로 入竺을 위한 巡禮出發을 始作했을 높은 可能性을 提示하고 있다. 따라서 慧超가 入竺을 위해 廣州 이외의 다른 地域에서 乘船했을 可能性은 매우 稀薄하다고 볼 수 있다.

慧超는 720년 初葉, 10월에서 12월에 부는 季節風을 이용, 廣州에서 乘船하여 東南亞海路를 따라 南下, 海岸線과 섬을 낀 淺海地域의 航路를 택해 各 地域에서 寄港 또는 滯留하면서 '裸形國'까지 到着했을 것으로 본다.

### 3.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慧超의 巡禮 길인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旅程을 考察하기 前에 당시 8世紀 초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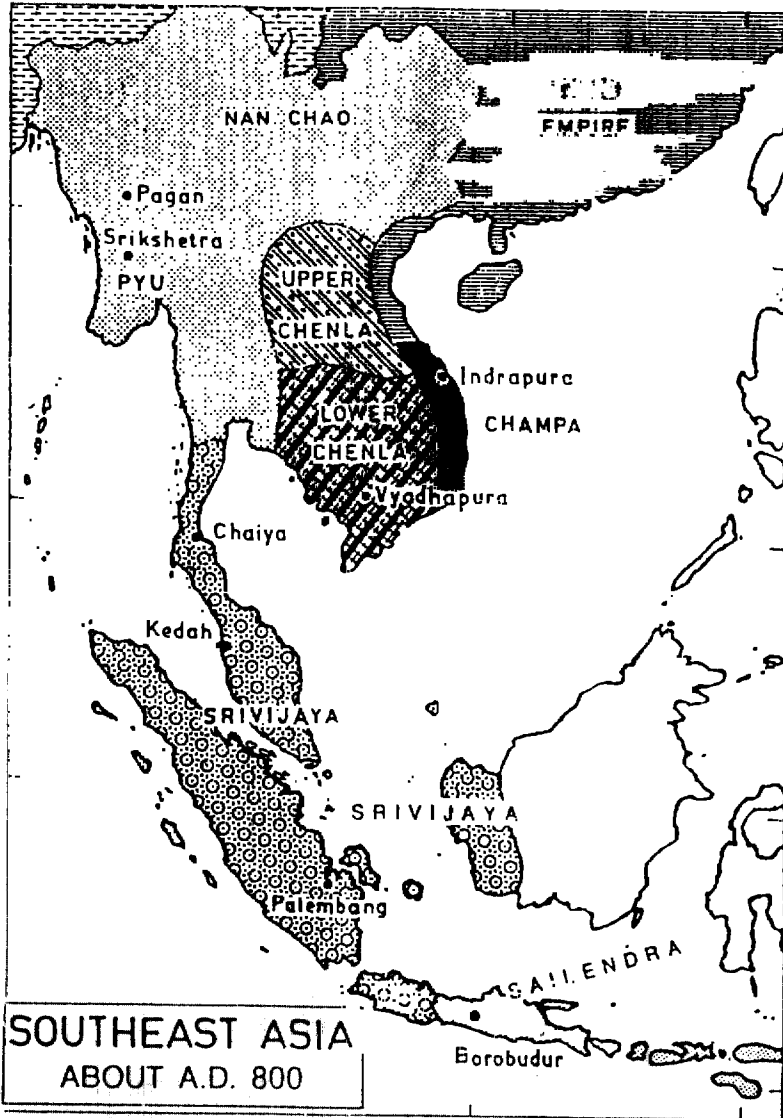
『唐大和尙東征傳』, 陵宣公奏議 卷 18 參照.

64) 高柄賢, *op. cit.*, pp. 14-15.

65) 本稿 II. 慧超의 旅程 3)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中 慧琳의 『一切經音義』 中 『往五天竺國傳』 上卷에 收錄된 語句, 語彙 參照.

인도차이나(Indochina)半島 특히 東南亞海路中 몇개의 寄港地가 있는 지금의 베트남 (Vietnam)狀況을 살펴보는 것은 慧超의 旅程을 推定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地圖 1-3> 8세기경 東南亞國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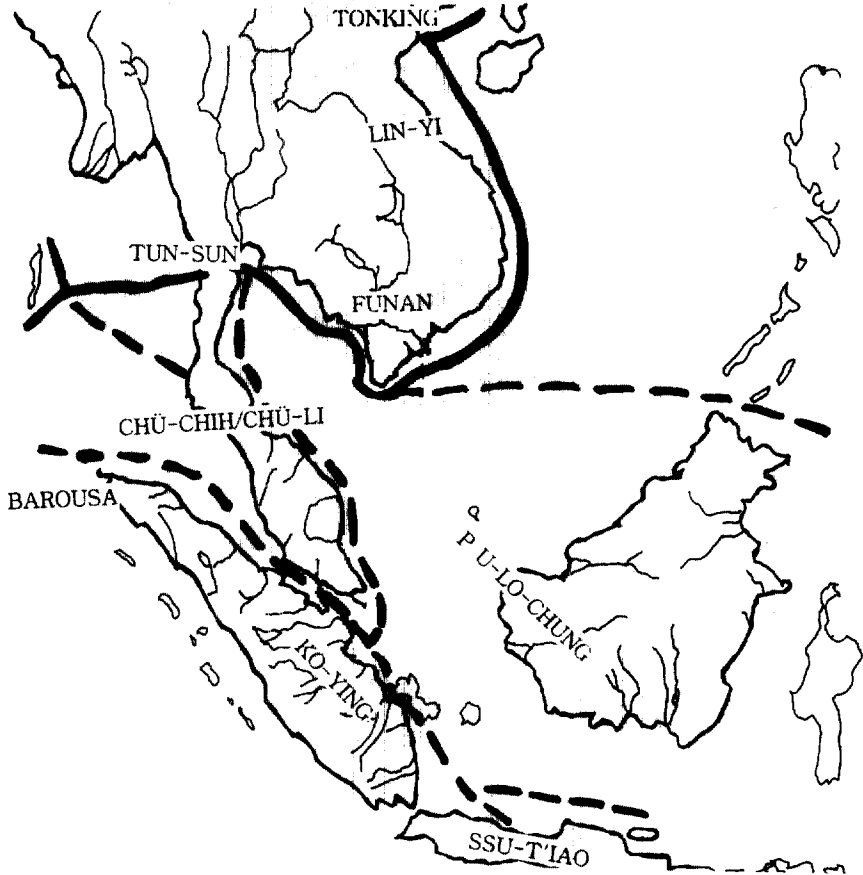


\* D.R. SarDesai, *SOUTHEAST ASIA past and present*, second edition (Boulder San Francisco: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9), p. 25

즉 廣州를 떠난 배는 中國의 해남도를 좌현으로 보고 지금의 통킹(Tonkin)만으로 접어들게 되며 그 후의 항로는 베트남의 北部 동쪽 海岸에 있는 항구를 시작으로 베트남의 南部 동,동남地域 항구를 寄港地로 해서 남하하기 때문이다.

또한 慧琳의 『一切經音義』 上卷 39개 語句, 語彙中 첫번째로 收錄되어 있는 語彙 '閩蔑'<sup>66)</sup>은 慧超의 여정중 지금의 베트남 南部地域이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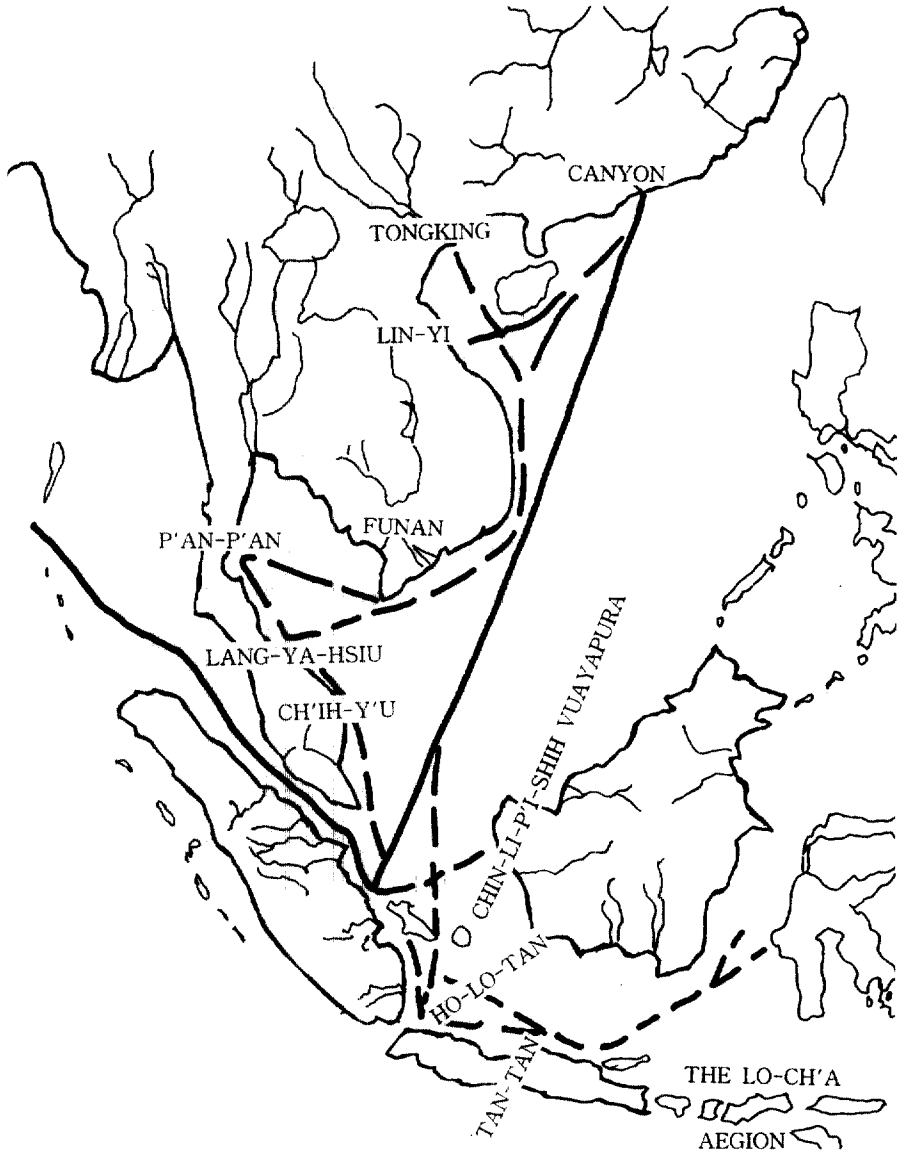
<地圖 1-4> 250년경 東南亞 海上交易路



\* O. W. Wolters, *Early Indonesian Commerce. A Study of the Origins of Sriwijaya* (Ithaca: Cornell Univ. Press, 1967)에 收錄된 地圖 引用.

66) 크메르(Khmer)를 意味함. 一名 眞臘, 扶南이라고 함. 8世紀頃 水眞臘(Lower Chenla)와 陸眞臘(Upper Chenla)로 양분됨. 本稿 II. 慧超의 旅程 3)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중 慧琳의 『一切經音義』 中 『慧超往五天竺國傳』 卷에 收錄된 語句, 語彙 參照.

<地圖 1-5> 430 - 610년 동안 東南亞 海上交易路



\* O.W.Walters, *Early Indonesian Commerce. A Study of the Origins of Sriwijaya*(Ithaca: Cornell Univ.Press, 1967)에 收錄된 地圖 引用.

唐은 지금의 베트남 北部地域에 安西都護府를 설치(619) 邊方의 夷族을 統治하였다. 722년 즉, 慧超 入竺의 巡禮를 始作할 무렵 지금의 베트남 南部地帶인 '호안 저



우'地域의 影響力있는 豪族인 마이 특 로안(梅叔鸞)이 唐의 支配 특히 前 보다 더 抑壓的인 관리들의 收奪에 對抗하는 叛亂을 일으켰다. '마이 특 로안'은 32개주의 住民은 물론 밖으로는 참파(Champa)<sup>67)</sup>와 眞臘(Chenla)등과 連繫하여 30萬大軍에 달하달하는 兵力으로 唐에 挑戰하면서 스스로 '黑帝'라고 稱했다. 이에 唐은 10萬의 遠征軍을 보내 간신히 鎮壓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亂의 規模가 그 전까지의 어느 叛亂보다 컸고 또한 外國 과도 연결되어 있는 體系的인 抵抗이었다.<sup>68)</sup>

한편 지금의 베트남地域 특히 安南都護府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은 唐代에 들어와 佛敎가 매우 隆盛하게 發展했고 많은 外國僧侶들이 長期間 滯留 後 지금의 '하노이' 近處인 交州에서 入竺을 위해 出發했다는 記錄은 發見<sup>69)</sup>되고 있으나 總 40萬의 兵力이 武力으로 맞부딪혀서 일으킨 混亂의 渦中 또는 그 後遺症을 앓고 있는 베트남地域 특히 南部地域에서 慧超의 長期間 寄港, 滯留 可能性은 적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慧超의 廣州 出發年度가 722년, 723 또는 724년일 경우 '마이 특 로안'의 亂은 慧超의 旅程에 直·間接으로 影響을 미쳤을 可能性은 매우 높다.

當時 慧超 入竺의 航路일 可能性이 높은 지금의 베트남 東部海岸과 南部海岸地帶의 寄港地를 떠나 南으로 내려 가며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地域이 말레이半島 東部海岸이 된다. 물론 '스리위자야' 왕國이 그 勢力을 지금의 泰國 南部地域까지 擴張시킨 8世紀 末葉부터는 베트남 南部地域에 位置하고 있는 '폴로 콘도르'(崑崙島, '콘손섬')섬의 寄港地를 떠나 南下하는, 또는 그 반대로 지금의 南支那海에서 北上하는 배 中 특히 商船의 航路를 그들의 海軍力을 動員하여 泰國灣을 통해, 泰國 南部地域으로 寄港을 誘導했으나<sup>70)</sup> 慧超가 그 地域을 지나갔을 當時인 8世紀 初葉에는 泰國 南部地域이 '스리위자야'의 勢力下에 들어가기 前이었기 때문에 '폴로 콘도르' 섬에서 泰國灣과 南支那海를 兩分하는 航路를 택해서 말레이半島 東部海岸으로 接近했을 可能性이 높다.

67) 一名 林邑이라고 함. 지금의 베트남 남부지역.

68) 劉仁善, 『베트남史』(서울:民音社, 1984), pp.70-71.

69) *Ibid.*, p. 71.

70) 本稿 III. '스리위자야' 왕국 2. 발전 및 융성 참조

<地圖 1> '크라'협지 通過 可能性 推論과 慧超의 航路<sup>71)</sup>



그리고 여기서 關心있게 登場하는 地域이 크라(Kra)狹地(Isthmus of Kra)<sup>72)73)</sup>로써 泰國灣과 안다만(Andaman)해를 最短거리인 42Km 陸路로 연결, 말레이半島를

- 71) 慧超가 '크라'狹地를 통과했다면 五天竺國으로 향하는 直航路인 北西向을 택했어야 하며 迂廻하는 裸刑國으로의 航路를 택했을 可能性은 적다. 즉 '크라'狹地에서 '안다만'諸島를 잇는 航路의 길이는 '크라'狹地에서 裸刑國과 '안다만'諸島를 잇는 航路의 길이보다 짧다.
- 72) 印度商人이 '벵갈'灣을 通過하여 交易을 할 때 말레이半島에 처음 寄港하는 곳이 '트랑'과 '끄다' 사이 地域이었다. 거기서 季節風이 바뀌기를 기다렸으며 '말라카'海峽을 지나 가는 것보다 '크라'狹地 通過의 利點을 알고 있었다. 7-11세기까지 '끄다'地域은 '스리위자야' 隸屬하에 들어간다. N. J. Ryan, *op. cit.*, pp. 9-10 參照.
- 73) 7-14世紀까지 船舶들은 '크라'狹地 보다 '말라카'海峽을 더 選好했다. *Ibid.*, pp. 9-10.

南으로 迂廻하는 航路를 東-西로 貫通할 수 있는 地域이다. 즉 지금의 말레이시아와 泰國접경에 위치한 '크라' 狹地를 利用, 말레이半島 東쪽 海岸에 있는 리고르(Ligor) 地域에서 商船으로 부터 貨物을 荷役하여 말레이半島 西쪽 海岸에 있는 '크라', 트랑(Trang) 또는 타쿠아 푸(Takua Pu)지역으로 말, 코끼리, 당나귀 등 動物을 使用, 移動시켜 다시 貨物을 船積, 出港하는 方法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sup>74)</sup> 물론 말레이半島 西쪽에서 오는 交易船도 같은 方法을 利用하여 말레이반도 東쪽으로 航海해갔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慧超가 베트남 南部海岸地帶를 出發하여 泰國灣을 東에서 西로 貫通하는 航路를 따라 航海 後 '크라' 狹地를 이용했을 可能性이 提起될 수 있다. 즉 '크라' 狹地를 통해 入竺했다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팔렘방(Palembang) 地域에 그 中心을 두고 있었던 '스리위자야' 王國에 慧超는 滞在하지 않았다는 推論이 成立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推論은 다음과 같은 論證으로써 그 成立 可能性이 稀薄해진다.

즉 慧琳의 『一切經音義』中『慧超往五天竺國傳』中券에 첫 글자로 나오는 '裸形國'의 語彙와 筆寫本『往五天竺國傳』첫 부분에 나오는 語彙인 '裸形'은 지금 印度領인 벵갈(Bengal)灣 東南向 또는 '안다만' 海 南쪽에 있는 니코바르(Nicobar)群島<sup>75)</sup>이다. 따라서 慧超가 만약 '크라' 狹地를 東에서 西로 貫通했다면 '크라', '트랑' 또는 '타쿠아 푸' 地域 船着場에서 다시 乘船, 그 곳에서 南西方向에 位置하고 있는 '裸形國'으로 航海했다는 事實을 意味하게 된다. 이것은 말레이半島 西쪽 海岸에 있는 '크라', '트랑' 또는 '타쿠아 푸' 地域에서 北西方向으로 航海해야만 入竺의 關門인 갠지즈江 어귀가 나오는데 慧超가 '크라', '트랑' 또는 '타쿠아 푸' 地域에서 '裸形國'으로 航海했다면 그의 巡禮길을 人爲적으로 迂廻시켰을 可能性과 難破 또는 遭難으로 인한 '裸形國'으로의 어쩔 수 없는 奇港이라는 不可抗力의 狀況을 예외로 한다면 慧超의 '크라' 狹地 通過可能性은 매우 稀薄하게 된다. 즉 두 邊 길이의 합이 한 邊의 길이보다 길다는 三角形의 幾何學 原理가 여기에 適用될 수 있으며<sup>76)</sup> 筆寫本『往五天竺國傳』言及되어 있듯이 慧超의 '裸形國' 滞在는 入竺을 위한 航海中 不可避한 奇港<sup>77)</sup>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74) R. Moh. Ali, *Peranan Bangsa Indonesia dalam Sedjarah Asia Tenggara* (Djakarta: Bhratara, 1963),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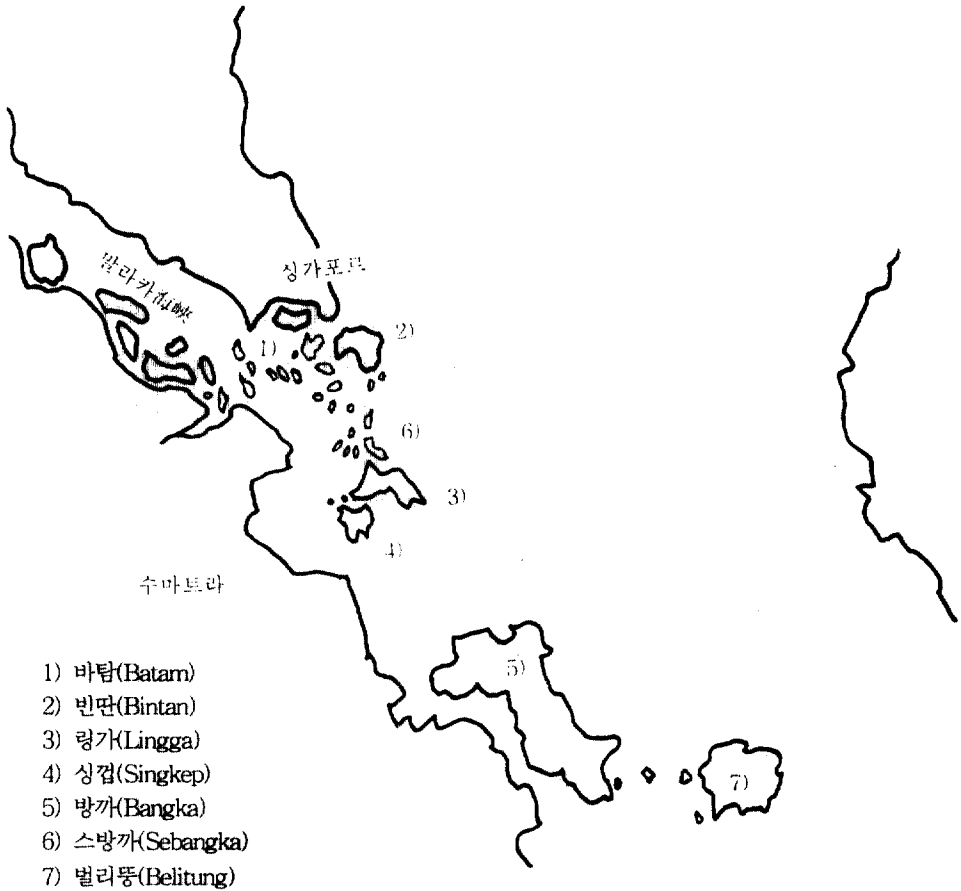
75) 本稿 II. 慧超의 旅程 4.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滞在 可能性 3. 裸形國의 位置 參照.

76) 本稿 <地圖 1- 6> 參照.

77) 本稿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滞在 可能性 3. 裸形國의 位置 參照.

또한 8世紀 이후 強力한 海軍力을 바탕으로 南支那海에서 '말라카' 海峽까지 全 航路의 安全을 管掌했던 '스리위자야' 王國은 交易船을 포함 모든 船舶의 '크라' 狹地 利用을 武力을 使用 制限시켰다. 그 理由는 더욱 많은 外國船舶들이 '말라카' 海峽을 통과해야만 物資의 船荷役에 따른 關稅의 徵收, 각종 財貨의 圓滑한 輸出入이 '스리위자야' 領域의 각 港口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스리위자야' 王國의 領土擴張時期에 第一 目標로 했던 곳이 위에 언급한 '크라' 狹地和 그 東쪽에 있는 '리고르' 地域이었다. 이로써 '크라' 狹地를 利用한 東西交易은 점차 退潮하게 된다.78)

<地圖 1-7> 싱가포르(Singapore)海峽 隣近 群島



78) Drs. S. W. Siswoyo, *Sejarah untuk SMA dan sekolah yang sederajat* (Jakarta: Penerbit Intan Klatan, 1979), p. 31.

한편 東南亞海路에 있어 '스리위자야'王國의 勢力이 지금의 泰國 南部地域까지 擴張되었을 當時에는 中國쪽에서 南下하는 船舶들 중 특히 交易船은 泰國 南部地域<sup>79)</sup>으로 奇港이 誘導되었으며 그 後 그들의 航路를 지금의 싱가포르海峽 또는 '말라카'海峽으로 돌렸다.

이러한 海軍力을 利用한 '스리위자야'王國의 外國船舶에 대한 強制寄港 및 航路變更에 대하여 『嶺外代答』<sup>80)</sup>의 『三佛齊傳』<sup>81)</sup>은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以故 隣國咸服焉 蕃船過境有不入其國者 必出師盡殺之” 즉 “이웃나라의 船舶이 이곳을 지날때 入國하지 않으면 戰士를 보내 全滅시켰다.”

여기서 慧超의 旅行中 또 注目해야 할 地點으로 싱가포르海峽, 當時 名稱으로는 '質'海峽을 들 수 있다. 지금도 여러 海峽中 淺海의 條件으로 圓滑한 航海를 위한 良質의 海峽에는 包含되고 있지 않는 싱가포르海峽은 지금까지의 地形, 地質調査를 통하여 7, 8世紀 그곳의 바다깊이는 現在보다 더 얕은 바다로 이루어졌음이 把握되고 있다.

즉 지금의 싱가포르에서 南쪽으로 順次的으로 있는 바탐(Batam), 빈탄(Bintan), 링가(Lingga), 싱겁(Singkep)섬 등과 그 隣近島嶼<sup>82)</sup>들은 當時 얕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었고 船舶들의 航海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sup>83)</sup>

여기서 慧超가 '質'海峽을 통과하여 '말라카'海峽으로 그의 航路를 잡았을 可能性이 提起된다. 그러나 '質'海峽의 길목에서 '링가'섬과 그 섬의 南쪽에 있는 방가(Bangka)섬 사이로 통과하는 海路(방가 海峽)로 船舶을 誘導하는 '스리위자야'海軍이 存在했을 可能性은 더욱 높다. 그 理由로서 '스리위자야'王國의 中心地인 '팔렘방' 또는 '잠비'地域으로 船舶을 強制誘導寄港에 따른 反對給付 獲得을 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르또노(S.Sartono)教授는 慧超보다 약 50년 앞서 入竺을 위해 東南亞海路를 따라간 義淨의 旅行中 싱가포르海峽 不通過 可能性을 다음과 같은 理由로 論證하고 있다.<sup>84)</sup>

79) 本稿 III. '스리위자야'王國 2)發展 및 隆盛 參照.

80) 『嶺外代答』 卷 23 三佛齊條傳 參照.

81) 中國史記 表記로 '스리위자야'의 異名. 자세한 것은 本稿 註 99) 參照.

82) 本稿 <지도 1-7> 參照.

83) 當時 商船들이 '質'海峽 通過를 地形的 理由로 忌避한 내용은 R. Moh. Ali, *op. cit.*, p. 25 參照.

84) S.Sartono, *Pusat-pusat kenajaan Sriwijaya berdasarkan Interpretasi paleogeografi*,

첫째, 義淨은 ‘링가’ 섬과 ‘방가’ 섬 사이에 있는 ‘방가’ 海峽을 통과했으며 ‘싱가포르’ 海峽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 理由로 船舶들이 當時 東南亞地域에 있어 제일 큰 交易港을 갖고 있는 수마트라의 ‘팔렘방’에 寄港, 더 많은 物品의 交易을 위해 말레이半島를 中心으로 東-西 또는 西-東으로 오고 가는 船舶들은 그들의 航路를 싱가포르 海峽을 통과하지 않고 迂廻하여 ‘방가’ 海峽을 이용했고,

둘째, ‘말라카’ 海峽을 掌握한 ‘스리위자야’ 王國의 海軍力이 外國船舶들의 ‘팔렘방’ 寄港을 強制誘導했고,

셋째, 말레이半島 동남쪽 해안지대에 선박들이 기항할 만한 항구가 없었으며

넷째, ‘링가’ 섬과 ‘빈뎀’ 섬 사이는 航海하기에 危險한 淺海地域이기 때문이다.

한편 慧超의 質 海峽 利用可能性 속에서도 通過 後 나타나는 ‘말라카’ 海峽을 航海시 左側에 있는 수마트라의 東部海岸에 있는 寄港地들을 外面했을 可能性은 적다.

즉 ‘質’ 海峽에서 ‘裸形國’까지의 航路<sup>85)</sup>는 當時 船舶의 性能으로는 短時日內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며 필히 中間寄港地를 택해야하는 狀況이기 때문이며 말레이半島 東南쪽 海岸地帶에는 먼 바다로 航海하는 배들의 寄港에 適合한 港口가 없었기 때문에 慧超가 乘船한 船舶이 ‘스리위자야’ 王國의 領域인 수마트라 東部海岸의 港口를 寄港地로 택했을 可能性은 매우 높다.

‘말라카’ 海峽과 관련하여 注意깊게 살펴보아야 할 事項은 위에 言及한 수마트라 東部海岸이 지금의 地形, 地質形態가 아니라 現在의 海岸線에서 內陸으로 많이 들어가 海岸線이 形成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은 內陸地方인 ‘팔렘방’ 또는 ‘잠비’ 지역 등이 慧超가 東南亞海路를 따라 갔을 當時에는 海岸線에 面해있는 港口地域이었음을 意味하며 ‘말라카’ 海峽의 폭이 現在보다 더 넓었음을 意味한다.<sup>86)</sup>

한편 慧超의 巡禮길 中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旅程을 直接的으로 밝힐 수 있는 唯一한 資料로 現在까지 發見된 것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收錄된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나오는 39개의 語句, 語彙에 대한 註釋을 들 수 있다.

물론 39개의 각 語句, 語彙간의 聯關性은 把握할 수는 없다. 즉 그 聯關性이 同時에 같은 地域에서 이루어졌을 可能性도 있고 그와 반대로 時間과 場所를 달리하여 相互聯關이 없이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收錄됐을 可能性도 있기 때문이다.

(Jakarta: Pusat penelitian purbakala dan peninggalan nasional, 1979), pp. 43-45.

85) 大略 1,100km

86) S. Sartono, *op. cit.*, pp. 55-64. 수마트라 東部海岸 地形變形에 대해서는 本稿 III. ‘스리위자야’ 王國 3. 滅亡 參照.

그러나 慧琳의 39개 註釋은 原典 『往五天竺國傳』의 上卷部分 즉 筆寫本 『往五天竺國傳』 앞부분의 復元에 重要的 열쇠를 쥐고 있으며 慧超의 巡禮길 中,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의 旅程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客觀的인 資料로 唯一하게 認定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一切經音義』의 『慧超往五天竺國傳』 中卷과 下卷에 나오는 語句, 語彙의 順序와 筆寫本 『往五天竺國傳』 內容 順序와 같음을 볼 수가 있어 『一切經音義』의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收錄된 語句, 語彙의 順序는 慧超의 巡禮日程(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과 順次的으로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慧琳의 註釋은 먼저 語句, 語彙의 中國語 發音 즉 音價를 限定해 주고 그 다음에 聯關되는 註釋을 表記했다. 39개 語句, 語彙와 把握된 意味는 다음과 같다.

<表 -1> 慧超의 『一切經音義』 中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收錄된 語句, 語彙

順序	語句, 語彙	中國語發音	慧琳의 註釋	國譯	備 考
1	閩蔑	keh-mie	崑崙語로서 옛이름은 林邑이다. 崑崙國中에서 제일 크며 佛敎를 믿고 있다	각멸	크메르(Khmer)를 指稱. 中國 史記에는 閩蔑 또는 吉蔑로도 表記
2	撥帝	bo-di	音價만 限定	발제	註釋에서 音價만 限定하여 意味 把握 不可能. 단 '손가락으로 뒤겨 움직이게 한다'의 意味로 볼 수 있으나 確實하지 않음
3	葛祿都	ke-lah-du	崑崙語이다	갈신도	註釋의 未洽으로 意味把握 不可能. 단 地名으로서 말레이半島 南部地域에 있는 峇蘭丹(kelantan)과의 聯關性을 考慮할 수 있다고 봄
4	蒲流	ping-liu	航海時 船舶이 불안정하게 波濤에 휩싸이는 모습	병류	
5	鬻鬚	ji-su	南方 夷族들의 粧飾風習, 假髮을 着用하는 風習, 수영을 기르고 귀를 뚫어 귀걸이를 着用, 文身風習 그리고 머리를 틀어 오리는 風習	00	(00)자 國譯 不可能. 단 慧琳의 註釋中 椎 과 三佛齊條에 明記되어 있는 '스리위자야' 風習中 男女椎계와 깊은 聯關性이 있다고 본다

6	抄掠	chao-luie	暴力을 使用하여 擄앗음	초약	
7	屯戍	tun-e	音價만 限定	둔액	註釋의 未洽으로 意味把據不可能. 단 '災難을 당하다' 또는 '危險한 곳에 머문다'의 意味로 볼 수 있으나 確實하지 않음
8	迴路	chung-ru	迂迴하여 가는 길	형로	
9	翩翩	pian-pien	새가 팔럭 팔럭 날개짓을 하며 나는 모습	편편	
10	杳杳	syang-syang	깊고 그윽한	묘묘	
11	掛錫	kwa-si	錫仗을 걸다	괘석	慧超가 佛敎 信奉 地域에 滞在, 奇港 또는 그 地域에 대한 見聞을 들었을 可能性을 보여주는 語彙임
12	盼長路	pan-chang-ru	천천히 바라보다	분장로	註釋에 대한 解釋이 未洽함. 다른 意味로 註釋되었을 可能性도 있음
13	攪亂	ryao-ruan	혼란스러움	요란	
14	山記	san-	植物의 一種	산과	註釋에 대한 解釋이 未洽함. (記)字 發音 不可能. 다른 意味로 註釋되었을 可能性도 있음
15	倥傯	kong-	즐거움이 없는 狀態	공 0	(倥)字 國譯 不可能. (倥)字 發音 不可能. 註釋에 대한 解釋이 未洽함. 다른 意味로 註釋되었을 可能性도 있음
16	牙嫩	ya-mun	植物의 씨가 發芽하는 狀態	아연	
17	參差	chun-cho	고르지 않아서 가지런하지 못함	참차	
18	邀祈	yao-chi	열심히 祈禱하는	적기	
19	恰如	cha-nu	恰似하여 비슷함	흡여	
20	輓芥	kun-jie	빙글 빙글 돌리다	흔개	註釋에 대한 解析이 未洽함. 다른 意味로 註釋되었을 可能性도 있음
21	崎嶇	chi-chui	山길이 험함	기구	
22	槍杆	chang-	槍, 武器의 一種	창 0	(杆)字 國譯, 發音 不可能. 註釋에 대한 解釋이 未洽함. 다른 意味로 註釋되었을 可能性도 있음



23	羆鹿	jang-ru	사슴 비슷한 動物	장목	註釋에 대한 解釋이 未洽함. 다른 意味로 註釋되었을 可能性 도 있음
24	玳瑁	dai-ao	바다거북의 一種. 껍질 을 黃金色이 나게 처리 할 수 있음.	대모	
25	龜龜	kui-pie	거북이와 자라	구별	
26	迸水	bung-shei	내 뿜는 물	병수	
27	巖然	i-ran	山이 높고 가파른 절벽	역연	
28	潑潑	bo-sie	波潑가 크게 몰아 치는 것	발해	
29	益穹蒼	i-chung-chang	큰 波潑가 몰아치는 것	일궁창	
30	炙窠	chu-an	쥐가 구멍으로 뚫리 도 망치는 形狀	주서	
31	龜龜	wien-tue	사람을 能히 해치는 파 충류이며 네개의 발을 갖고 있고 가죽은 두껍 고 꼬리가 있다. 길이가 5,6尺 정도이며 등 에는 비늘이 있다.	원단	인도네시아 全域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파충류 一種인 비아 악(biawak)과 聯關 이 깊은 것으로 보 임
32	椰子漿	ie-che-chang	형태는 芭蕉를 닮았고 그 과일과 흡은 맛이 뛰어나다. 造船을 할 때 材料로도 쓰인다.	야자장	
33	目欄	mu-che	蕃人들이 山에 居住할 때 居住地域에 두르는 나무담장	목책	
34	杆欄	gan-ran	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橫으로 세운 木造 物	간란	
35	錐頭	jui-tou	커다란 針 또는 송곳	추두	
36	壓舶	ya-bo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	추두	
37	拋打	pao-da	던져 때리다	포타	
38	峻滑	juin-hwa	가파르고 미끄럽다	준활	
39	聒地	kwa-di	떠들석한 地域	팔지	註釋에 대한 解釋이 未洽함. 다른 意味로 註釋되었을 可能性 도 있음

여기서 廣域의 意味와 陸路로 관련되는 語句語, 語彙로서 閩蔑, 萬弊都, 鬚鬚, 掛錫, 山白, 牙嫩, 崎嶇, 鬚鹿, 龜龜, 椰子漿, 木柵, 杆欄 등을 들 수가 있고 廣域의 意味로 海路와 聯關되는 語句, 語彙로서는 奔流, 玳瑁, 龜龜, 进水, 渤澥, 溢穹蒼, 壓舶 등을 들 수가 있어 慧超의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의 旅程이 完全한 海路 또는 陸路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航海와 陸地에 寄港 또는 滯留한 混合된 巡禮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陸地와 바다를 오고 가면서 進行된 旅程이었음을 直, 間接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39개의 語句, 語彙中 東南亞地域과 聯關<sup>87)</sup>깊은 것으로 閩蔑, 萬弊都, 鬚鬚, 玳瑁, 龜龜, 椰子漿, 木柵 등을 들 수 있다.

#### 4.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

이미 많은 部分이 여러 學者들의 研究로 밝혀졌고, 本稿의 主題와는 無關하기 때문에 慧超의 巡禮길인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 旅程은 言及하지 않겠다. 다만 義淨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 下卷에 나오는 '裸形國'을 說明하는 部分을 引用함으로써 慧超가 義淨보다 약 50년 後에 스쳐 지나간 그곳의 當時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2월이 되어 羯茶<sup>88)</sup>로 向해 王船을 갈아 탄 뒤 東쪽으로 向했다. 羯茶에서 北쪽으로 10일 정도 航海하니 裸人國에 닿아 東쪽 海岸을 바라보니 椰子나무 등 山林이 우거지고 보기 좋았다. 사람들이 배를 보고 작은 배 100척에 올라타고 와서 바나나, 야자를 내밀면서 物件으로 交換하자고 했다. 男子들은 裸體였고 아녀자들은 紗紗로 몸만 가리고 商人들이 옷을 건네주자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sup>89)</sup>

87) 『一切經音義』의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의 39개 語句, 語彙와 특히 '스리위자야' 王國과의 關係는 本稿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滯留 可能性 1. 『一切經音義』의 語句, 語彙分析 參照.

88) 本稿 註 55) 參照.

89) 至十二月舉帆還乘王船, 漸向東天矣. 從羯茶北行十日餘, 至裸人國向東望岸, 可一二許, 但見椰子樹檳榔林森然可愛. 彼見船至, 爭乘小艇, 有盈百數, 皆將椰子芭蕉及藤竹器來求市易, 其所愛者, 但唯鐵焉, 大如兩指, 得椰子或五或十. 丈夫悉皆裸體, 婦女以便葉遮形, 商人戲授其依, 即便搖手不用. 義淨, 大唐西域求法高僧傳 下卷 參照. 여기서 關心을 끄는 것은 '끄다'에서 배로 약 10일 정도 北쪽 方向에(正確한 方向은 北西向) 裸人國이 있다는 內容과 12월이 義淨이 王船을 타고 '스리위자야' 中心地에서 出發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즉 주

이는 '裸形國'이 아직 未開狀態임을 端的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慧超가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에서 이미 言及했듯이 '(上缺) 寶' 90)가 없는 地域 즉 佛敎가 들어와 있지 않은 이 地域에 慧超가 '크라' 狹地를 東에서 西로 通過하여 그의 旅程을 짐짓 늦춰가면서 迂迴하여 滯留했을 可能性은 稀薄하게 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慧超의 滯留는 中間奇着地로서 어쩔 수 없는 寄港에 따른 것이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推論할 수 있는 慧超의 旅程은 '말라카' 海峽을 北西方向으로 通過하여 '끄다' 에 寄港 後 다시 北西方向으로 航海하여 '裸形國'에 到着한 航路와 '말라카' 海峽을 北西方向으로 通過한 후 수마트라 北部地域에 있는 '바투스' 91) 港에 寄港 後 그 北쪽에 있는 '裸形國'으로 航海했을 두가지 航路를 생각할 수 있다.

그 後 慧超는 그의 最終 目的地인 五天竺國을 向해 '裸形國'을 出發, 그 北쪽에 있는 '안다만' 諸島를 南에서 北으로 거슬러 올라간 후 지금의 미얀마(Myanmar) 南部海岸을 끼고 갠지스江 어귀로 배의 方向을 잡았을 可能性이 推論된다.

또는 '裸刑國'에 기항 후 '안다만' 諸島와 '니코바르' 群島 사이의 바다를 西進하여 통과, 北西向에 있는 갠지스江 어귀로 向했을 可能性을 들 수 있다.

한편 慧超의 '裸形國' 滯在에 관련하여 提起될 수 있는 또 다른 反論으로서 筆寫本 『往五天竺國傳』 첫머리에 言及되어 있는 '裸形國'에 대한 記述部分中 '地皆平' 즉 '땅은 모두 넓다' 라고 地形을 描寫하고 있는 內容과 高柄翊 博士가 『新往五天竺國傳』(上)에서 '地皆平'에 대해 밝힌 內容과의 差異點을 들 수가 있다.

즉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의 '裸形國'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의 '니코바르' 群島이며 高柄翊 博士가 '地皆平' 地形을 對比하여 言及한<sup>92)</sup> 地域은 지금의 '안다

주저없이 裸人國(裸形國)으로 '니코바르' 群島를 言及했고, 東에서 西로 부는 季節風時期 (12월)에 '스리위자야' 王船을 타다라는 內容으로 보아 '스리위자야' 王國이 外國僧을 歡待했던 한 斷面을 볼 수 있다.

90) 李錫浩 教授는 佛敎와 關聯된 語彙로 解釋, 즉 三寶(佛, 法, 僧)로 解釋함.

91) 本稿 註 32, 33 參照.

92) 1983년 韓國放送公社 取材팀과 高柄翊 博士는 '안다만' 諸島 首都인 '포트 블레이크'에 入港.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의 記述中 '地皆平'과 '포트 블레이크' 港 隣近地形과 相異함을 高柄翊 博士는 現地를 둘러본 후 밝힘. 하나의 推論으로서 高柄翊 博士는 다음과 같이 밝힘. 즉 '慧超가 '니코바르' 群島에 들른 것은 사실이지만 '地皆平'의 地形을 나타내는 곳은 印度大陸의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라고 함. 자세한 內容은 金鍾玉, *op. cit.*, p. 39 參照. 한편 '裸形國'의 位置를 오오다니(大谷勝眞)는 말레이半島의 北部海岸地帶로 主張하고 있으나 當時 '裸形國'과 갠지스江 어귀를 잇는 航路와 慧超가 '裸形國'을 出發, 한달여만에 印度의 '카시아' 地方에 到着하는 旅程의 日數를 勘案한다면 說得力이 약하다. '오오다니'의 논문 "慧超往五天竺國傳の一二に就いて," 『小田先生頌壽紀念朝鮮論集』 參照.

만' 諸島의 首都인 포트 블레이어(Port Blair)港의 隣近地域으로 差異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地皆平'에 대한 또 하나의 可能性으로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의 筆寫者가 原典을 節略, 縮略하는 過程에서 誤記, 글자의 削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筆寫에 따른 글자의 誤記와 脫字 혹은 添加는 『一切經音義』에 收錄된 語句, 語彙와 筆寫本 『往五天竺國傳』과 對比, 對照해 보면 쉽게 發見되고 있다.

慧超가 五天竺國에 들어가 727년 11월 上旬(開元15)에 唐의 安西都護府가 있는 '쿠차' 國에 到着할 때까지 32개國 및 地域을 訪問하는데 巡禮길의 終盤地域인 吐火羅國에서 10개國에 대한 見聞은 단지 聽聞하여 記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